

생계가격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닭고기 소비량 확대를 통해 육계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박 희 권 수석부장
(주)하림 기획조정팀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육계산업의 불황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정작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

올해 복정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육계시세는 과연 얼마나 갈까? 소비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날까?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 다만 걱정스런 생각을 지을 수 없을 뿐이다.

1. 육계가격 결정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육계산업은 매우 독특하다. 특히 생계가격 결정 시스템은 일반 제조업체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게 결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 결정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원재료비가 산출되고, 제조비용과 판매관리비가 추가된 후, 제조회사에서 취해야할 적정 이윤을 계산하여 제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육계 가격의 결정 시스템은 어떤가?

한국의 육계산업과 양돈산업을 비교하여 보자. 병아리와 자돈을 가지고, 사료를 급

여하고, 쾌적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적절한 사양관리를 하고, 목표 출하체중까지 사육하여 도축을 실시, 소비자들에게 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런데 가격결정시스템이나 종사자들은 수익정도는 출하체중 육계 1.5kg과 돼지 110kg 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이유가 뭘까?

육계가격과 수급조절의 관계를 살펴보자. 최근 10년간의 육계가격을 살펴보면 10년 평균 시세는 kg당 1,202원이고, 시세는 3~5년을 주기로 하여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여 주기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주기마저 없어지고 예측이 무의미한 시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수입육의 급속한 시장잠식과 사육기반 확대에 따른 공급량 증가에 있다. 과거에는 시세가 낮으면 자체 감축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감소시켜 시세를 반등시켰으나 이제는 효과가 미미해졌다.

이제는 시장이 변한 만큼 육계가격 결정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육계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최저 가격 지지제도를 도입하여 전 계열업체에서는 공히 최저 가격을 준수하여 kg당 700원, 800원의 시세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육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업체별 과당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도계비용과 판매관리비, 적정이윤에는 못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을 피해야 한다.

셋째, 수입냉동육과 신선육을 확실하게 가격부터

차별화하자.

국제경쟁력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일본의 경우를 보자. 80년대 후반에 닭고기 수입이 개방되어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수입육은 일본시장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1997년도 수입개방이 되어 5년차이던 2002년도 수입육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3~4년 후에는 40%이상 시장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선육 시장과 냉동육 시장을 확실하게 차별화하여 수입육은 저가, 저품질 시장으로 유도하고, 국산 신선육은 고급육 시장으로 육성하여 제값을 받으면서 제 위치를 찾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닭고기의 벌크 유통을 포장유통으로 유도하여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계속 사육농가들에게 사육시설 개선을 통하여 사육성적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 농촌의 소득보장산업 중의 하나로 육계산업이 자리매김하였다. 과거 미작, 과수, 화훼 등을 했던 농가가 육계사육으로 전업한 경우가 매우 많고, 앞으로도 전업의 추세는 계속 늘어나 국내 닭고기 소비량 증가세보다 양축농가 증가율이 높아 생산과잉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육계가격 약세가 예상된다.

우리 계열업체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요창출과 닭고기 수출 등을 추진하여 육계산업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육계시세를 막고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 닭고기 소비량 증가는 육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

이제 육계산업은 1차 산업이 아니다. 유통과 식품산

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2, 3차 산업이다. 이제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 육계인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값싸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육계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표 1〉에서와 같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10%이상 육계산업이 성장하여 닭고기 소비량이 2배 이상 신장되었다. 국산닭고기는 1.6배, 수입육은 8.3배 정도 신장했는데, IMF이후 국내 경기의 호전,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닭고기 섭취량 증가가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후의 닭고기 소비량은 얼마나 늘어날까? 과거 5년처럼 육계산업을 매년 10%이상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2003년 1/4분기의 경우를 보면 국산 도계수수는 전년대비하여 3.1% 늘었으나, 수입육이 25.5% 감소되어 전체 소비량은 6.2% 정도 감소되었다. 그렇다면 닭고기 소비량을 계속적으로 신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닭고기 소비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육계산업의 발

전을 기약할 수 없고, 늘어나는 닭고기 생산량을 적정시세로 판매할 수도 없다.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여 판매량과 적정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탄수화물 보다 단백질을 선호하고,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좋아하여 그 섭취량은 급속하게 늘고 있다.

끝으로 국내 육계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 육계인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의 장기간 육계 불황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의 닭고기 소비량을 5년 이내 최소 50~100% 늘어나도록 제품개발과 신규시장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이상 수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계육협회의 조정과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급조절, 국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육계인은 협회에 힘을 실어 주자. C

〈표 1〉 국내 육계산업 성장 현황

연도	국산			수입			합계			
	도계수수	신장률	성장지수	수입량(톤)	환산수수	신장률	성장지수	수수	신장률	성장지수
2002	497,313	12.3	159	97,324	194,648	14.7	828	691,691	13.0	206
2001	442,870	12.1	142	84,864	169,728	27.9	722	612,598	16.1	182
2000	394,907	5.9	126	66,334	132,668	44.4	564	527,757	13.5	157
1999	372,802	19.4	119	45,976	91,952	291.2	391	464,754	38.4	138
1998	312,346	-	100	11,752	23,504	-	100	335,850	-	100

※ 성장지수는 1998년을 기준(100)하여 정리
 ※ 수입량은 정육 1kg을 생계 2수(1.5kg)로 환산